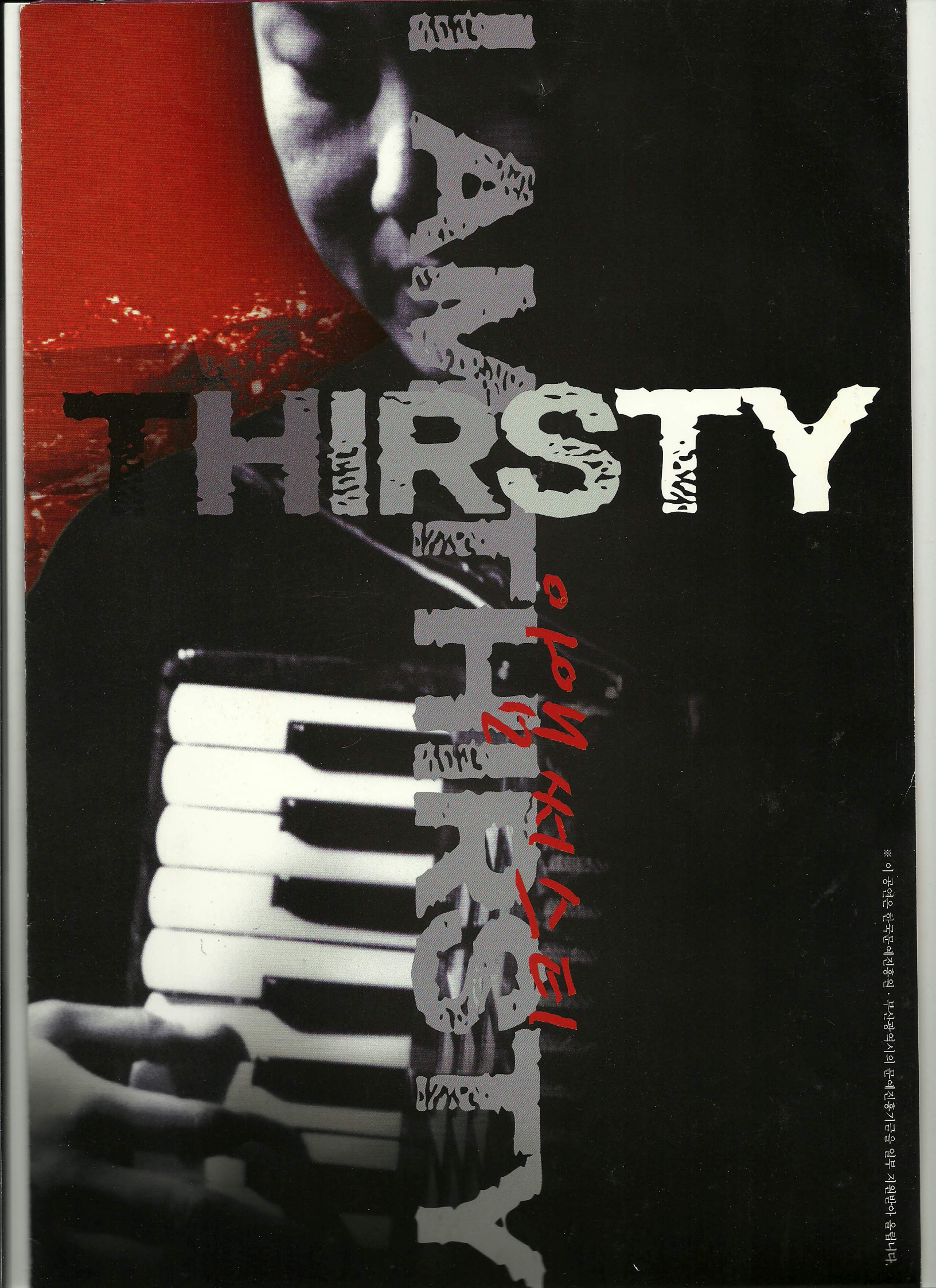




HIDSCITY

01012 세션

※ 이 공연은 한국문화진흥원, 부산광역시와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일부 지원받아 올립니다.

핏빛 술판 속에 마지막 한사람 있어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다!

이탈리스트

2002. 12. 15 (일) 하오 8시 주교좌 남천성당 강당
12. 23 (월) 하오 7시 민주공원 소극장

주최 : (사)민족미학연구소 / 주관 : 민주공원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부산광역시

문의 : (사)민족미학연구소 ☎ 241-5898



I AM THIRSTY

작품의도와 관련하여

채 희 완 (부산대 교수 · 미학)

창

작마당극 「아엠 써스티」의 소재는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 중의 하나로서 갈릴래아 가난한 집안의 혼례마당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다. 40여일간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나서, 봄날, 고향 갈릴래아로 돌아와 행한 첫 기적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를 종교적, 영험적, 기독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를 당시의 독특한 연행적 사건으로 포착하길 서슴지 않을 따름이다.

'혼례마당', '물을 술로'라는 설정 자체가 연행적 상상력을 분출시키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갈릴래아'라는 버림받은 이들이 사는 척박한 땅의 이미지,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봄날'이라는, 혹독한 암흑기를 뚫고 새 삶을 새로 기약하는 밝음의 이미지, 그리고 두 몸이 한 몸 되는 하늘 서약의 혼례, 잔치판에 모여드는 군중들의 시장 난장같은 떠들썩한 마당 집회 분위기 등이 벌써부터 극적 상황을 이미 유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이 난 술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술꾼들, 이들을 달래느라 혼술이 나는 잔치 집행부서 사람들, 그 안타까운 절편함이라니! 혼인잔치에 어김없이 끼어드는 떨거지패가 아니더라도, 생각만 해도 몸과 마음이 흥건해지고 후줄그레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는 뒷전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별 소용없는 자로 묻혀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무대 중앙까지 등장하게 되는 3류 탄파라의 연행을 통해 우리는 광대 예수의 한국적 출현을 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마당극은 기독교의 선교극일 수 없다. 오히려 본의 아니게도 그 반대의 것으로 이단시되어 낙인찍힐 처지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다만 우리는 이를 통해 전일주의(全一主義)적 예수상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저마다 나름대로 살고있는 일상생활인의 유희적 생태, 통과의례적 생활매듭 속에서, 일상 예수, 예수적 삶의 보편성을 만나게되는 것이다. 대중적 삶의 상황(예를들어 이 작품에서는, 농성장, 거리의 현장, 환락가 등)이 불려일으키는 궁극적 실체전망의 실현에 몸 던지는 자의 자기 희생적 연행 속에서 2천년 전 갈릴래아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별 것 아닌 데에서, 보잘 것 없는 데에서 거룩함이 생성되어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창작과정에 동시에 초대되는 관중과 함께 작품을 꾸미고 만들어 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도정이라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다. 특히 이 마당극의 주요등장인물이 청소용역부, 이틀테면 거리의 미화원이거나 식당이나 식당의 미화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 볼만하다.

쓰레기가 덩불로 싸인 자본주의의 막다른 사회구성체에서 이들의 삶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들의 삶이 마땅히 추구하고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적 영성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듯, 놀이하듯 살아가는 그 자체속에서 일상예수, 광대예수의 메시지가 생성, 분출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이란 '이미 주어진 인물'이 아니라 '판의 상황에서 생성되는 인물'이길 상정해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진행형으로 상황변적으로 창출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예수 역시 실제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미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면서, 대중 삶의 현실 속에서 이들의 염원을질적으로 크게 전변시킨 본원적 인물로 서서히 등장되어 간 인물일 것이라고 상정해 보는 또 어떠한지.

한국의 마당극으로서 유별나게 영어말로 제목을 잡은 것은 조금은 위태로운 일이나, 60대 이상 한국 노인네의 '찬송가 부르기의 한국 선율화' 차원에서 이해해 볼적하다고 본다. 물론 말뜻대로 '목마르다'이고, 적극적으로는 '타는 목마름'이다. 술잔치 판에 술이 떨어진 끝에 술을 찾는 술꾼들의 아우성이 갈릴래아 혼례마당 뒤뜰이에서 들려나왔을 터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예수의 이적으로 목축임을 받아 예수 찬송 소리로 바뀌었을 터이다. 또 「아엠 써스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부르짖은 예수의 마지막 음성이기도 하다.

“다 이루었다” 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지극 완성과 지극 절망 사이에서 터져 새어나오는 절대 갈증의 낮은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눈에 선연히 각인시켜 준다.

'타는 목마름'의 갈증은 육체적 고통이어서 육체적으로 감염되어 기화(氣化)되어 닥쳐와 '떨림'이 되어 버리고, 또한 그것은 영혼의 울부짖음이어서 혼령이 복받쳐 일으키는 '신령'으로 장엄한 '떨림'이 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그것은 동학에서 최고의 규준이 되는 '기화신령(氣化神靈)'의 세계와 통한다. 십자가 선상의 타는 목마름은 피, 눈물, 땀, 한숨이 뒤섞인 최후의 만찬의 포도주, 갈릴래아 혼례마당의 포도주와 의미 연관이 되어있다. 우리는 이를 「아엠 써스티」라는 이름으로 유기화 해보려고 해서 이를 우리 마당극의 제목으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세 마당으로 구성되는 이 마당극은 피, 눈물, 땀이 뒤섞인 술판들의 행렬이다. 끊임이 없는 눈물 같은 술, 땀과 같은 술, 예수의 보혈과 같은 술을 찾아 떠다니는 거리곳(road 곳)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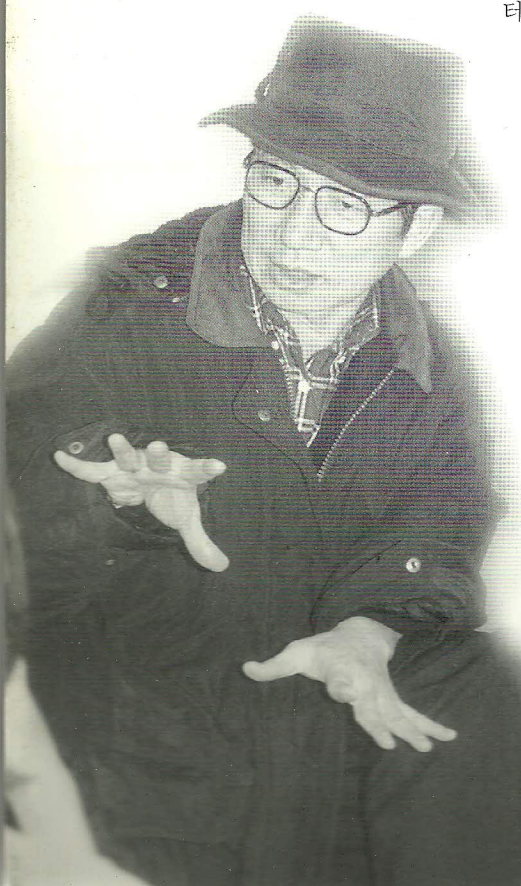
실내무대, 실외무대, 마당차림무대, 마당 차리지 않은 무대를 나고드는 가운데 술판은 무르익고 온 땅은 술판화, 온 집은 술집화가 되고, 온 사람은 술꾼화되어 광대 예수가 제공하는 피 같은 한 잔 술의 21세기적 영험력에 감염되고 만다.

물들여지는 핏빛 술판 속에 마지막 한 사람 깨어나 있어, 부르짖는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가난하고 억울한 이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다한 성녀 마사 테레사 수녀가 인도 곳곳에 세운,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숙소의 입구에는 「I am thirsty」라는 문귀의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한다.

위의 여러 가지 개발 의도를 총괄하여 예술적 표현문제로 국한해서는,

- ① 세상 삶에 대해 가차없이 공격적이되 능청스러운 정도로 친화력을 지닌 민중적 표현을 얻기 위하여,
- ② 숨이 길되 지극히 평탄, 단순하여 쉽게 다가가고 다가오는 고졸(古拙)한 표현을 향하여,
- ③ 그리고 아무리 비극적 정황이더라도 이를 속 깊이 삭힌 채, 맑고 밝게 진동하는 신명의 숨결을 한편 고르면서
- ④ 수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 작품의 의도를 살리는 표현을 얻는데 진력을 다해본다.
- ⑤ 그래서 “사랑”이란, 없는, 한정된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몸과 마음들) 남에게 아낌없이 같이 쓰는 일일 따름이다.”라는 지극히 평상적인 메시지를 이 마당극의 또다른 숨겨놓은 주제로 삼는 것이다.



줄거리

앞마당 (Prologue)

중소도시에 소재한 어느 성당의 앞마당. 일반 노조원의 농성장이 된지 100일째를 맞는 봄날, 화창한 어느 주말의 하오. 농성자들과 전경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성당청소부, 쓰레기, 화염병 조각, 찢긴 천막 등을 치운다. 스피커를 통해 정오까지 철수해 줄 것을 통보받은 농성자들,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진법으로 포진하는 전경들,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나 연일 반복되는 상황에 이들 모두 서로의 역할에 익숙하나 지쳐있다.

전경들, 혼례미사에 참가하러 들어오는 하객 상대로 엄중 감시를 하며,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를 놀이 삼는다. 농성자들, 새로운 소식에 목 말라하는데 하객을 상대로 통사정하며, 이를 일삼는다. 이때 하객은 관중의 일부이다. 아침부터 해장술에 취한 하객의 등장으로 아연 긴장감이 돌기도 한다.

혼례 관계자, 농성자, 전경들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혼례미사를 집전할 신부님의 등장을 애타게 고대한다.

첫째 마당 '혼배미사'

신랑측 경상도 두메산골 문중 사람들, 각시측 전라도 갯벌 문중 사람들, 전경과 실랑이 끝에 어렵사리 성당마당 출입을 허락 받고 판에 자리를 잡는다.

신랑, 각시, 신랑어머니, 각시아버지 등 혼례 당사자들이 초조하게 미사를 집전할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다 못해 성당 청소부에게 신부옷을 입히고 혼례미사 리허설을 한다.

하객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도 배풀어 뒤풀이 연습도 한다. 뒤풀이가 연습의 수위를 넘어서고, 공급이 중단된 술(영성체)을 찾는 무리의 아우성이 또다른 농성현장을 방불케 한다. 일부 농성자도 이에 가세하게 되고, 신랑어머니, 각시아머니가 청소 구역부라는 정체가 밝혀지며 혼례판이 깨질 상황까지 돌입한다.

성당 오르간 연주자이자 3류 카바레 아코디언 연주자의 개입으로 위기 상황이 수습된다. 판이 다시 고조된다. 업소 출연시간이 목전에 닥친 아코디언 연주자를 따라 하객들 무작정 거리로 나선다.



둘째 마당 '거리굿'

이때 농성하고 있던 노동자 중 한 사람, 성당 밖 발코니에서 분신을 기도, 하객들, 농성자들, 전경들 밀리고 밀치면서 판이 이수라장이 된다. 앞장 서게된 아코디언 주자, 갯가지로 거리의 상황에 부닥치면서 이를 헤쳐나가는데, 그러는 도중속에서 본의 아니게 거리의 영웅이 되어간다.

미국 대통령 환영행사 중 어고생 브라스 밴드 행렬,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실황중계 수상기 앞 군중, 시장번영회 이사장 선거유세, 거리의 미화원 교통사고 현장, 폭주족의 질주, 행려 여인과의 우발적인 만남 등 그때그때의 정황에 마주쳐, 노래와 악기 연주와 춤과 짙막한 연설로써 거리에 나선 각계각층의 군중들과 판을 벌인다. 이렇게 군중들과 교섭하고, 아울러 접화(接化)해 나가는 과정을 두고, 거리의 신상보존, 이 땅의 로드굿, 로드순례, 로드미사라 할 만하다.

셋째 마당 '스페셜 아워'

밤 11시, 3류 카바레의 골든타임, 스페셜 버라이어티 패키지 쇼가 벌어진다.

청천벽력쇼, 소낙비쇼, 이슬비쇼, 굿은비쇼, 등. 카타콤 같은 미로의 밀실, 불길 같은 조명. 또 다른 한바탕의 탈판인 양, 최후의 만찬 회식장인 양, 어떤 알지 못할 힘에 밀려 이곳에 들어온 하객, 농성자, 전경들, 그 밖의 거리의 인파, 그리고 떨거지들에 어워싸여, 신랑, 각시의 함공이 이루어진다.

중간 계산이 끝나고 매상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즈음, 분신노동자 체포 소식이 들려오고, 거리의 악사인 아코디언 연주자, 해고된다.

뒷마당 (epilogue)

관중을 포함하여 모두다 자빠져 자는데 깨어 있는 자 있어, 목이 타서인지 물 또는 술을 또 찾는다.



등장인물

아코도르

심청

신랑

각시

신랑어머니

각시아버지

성당청소부

농성노동자

분신노동자

전경대장

시장번영회장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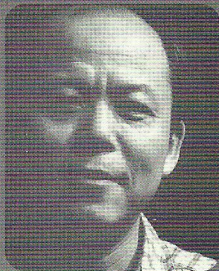
폭주남

폭주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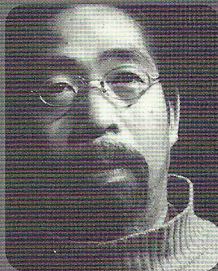
행려여인

거리군중

춤꾼



김기천



손재오



조은영



강동욱



전병복



홍순연



전성호



이혜영



손재서



임현미



송성아



염지연



방영미



김보경



남대우

구영정
나정하
김해진
김백은
박인영
심지현
심이혜
이은혜
장윤주
윤홍안



출연 김기천

손재오

조은영

강동옥

전병복

홍순연

전성호

이해영

손재서

임현미

송성아

염지연

방영미

김보경

남대우

구나영

권해정

김기하

백은진

박인영

심지영

심지현

이혜진

장은실

윤혜진

홍연희

안주희

총연출 채희완

음악 이종구

안무 강미리

탈제작 이석금

드라마투르기 박정곤 구재연

기획 최정완 정승천

조연출 황해순 남기성

무대감독 이상헌

미술 배인석

음악편집 서상환

포스터 김정희

사진 이장수

영상 이호근

홍보 강희철

진행 이상우

조명 최의덕

의상 황지선

음향 권성훈